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사)한국포장협회가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2월 26일 포장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제10회 한용교 포장인상에 선정된 수상자는 ▲연구개발부문 권순오(성안기계공업(주) 연구개발부 과장), 박성구((주)필맥스 생산본부 필름연구소 연구2파트장) ▲수출진흥부문 오영택(동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장학부문 오가영(연세대학교 패키징학 3년), 정성엽(경북과학대학 패키징매니지먼트 1년), 오진영(신성대학 상품포장과 1년), 김해진(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유래혁(순천청암대학 포장학 1년) 등 8명이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한용교((주)원지산업 대표이사) (사)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이 국내 포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포장인들을 대상으로 긍지와 신념을 갖게 하고 연구의욕 고취로 국내 포장분야 발전과 포장산업 세계화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 1998년 10월 제정되었다.

본 고에서는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 | | |
|--------|-----|---------------------|
| 수출진흥부문 | 오영택 | 동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
| 연구개발부문 | 권순오 | 성안기계공업(주) 연구개발부 과장 |
| 연구개발부문 | 박성구 | (주)필맥스 필름연구소 연구2파트장 |
| 장학생부문 | 오가영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
| 장학생부문 | 정성엽 | 경북과학대학 패키징매니지먼트 1년 |
| 장학생부문 | 오진영 | 신성대학 상품포장과 1년 |
| 장학생부문 | 김해진 |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
| 장학생부문 | 유래혁 |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1년 |



수출 시장 확대에 앞장

향후 3천만불 수출실적 달성 목표



오영택 / 동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사]

한국포장협회가 매년 포장인의 날 실시하고 있는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 동일화학공업(주) 오영택 대표이사가 수출진흥부분에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저희 보다 수출분야에서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상의 영예를 안게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천만불, 삼천만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택 사장은 “개인적인 수상이 아닌 공장에서 불철주야 제품 생산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생산팀 직원들의 공로를 대신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영택 사장은 AMERICAN UNIVERSITY 및 조지워싱턴대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식견을 넓혀왔다.

한솔제지 공채 1기로 처음 포장업계에 입사한 오 사장은 약 2년간 영업기획 업무를 바탕으로 치밀한 수치 관리 능력과 관리능력을 겸비하는 수출 중심기업 CEO로서의 역량을 준

비하였다.

특히 오 사장은 1993년 동일화학공업(주) 입사 후 약 13년 동안 화학산업 분야에서 백안시 되던 수축필름의 기술력 증진 및 품질 향상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수출 시장 개척을 선도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동일화학의 주력상품인 PVC 및 OPS 수축필름의 90% 이상이 해외시장에서의 호평 속에 연간 15% 수출 신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시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오 사장의 노력으로 동일화학은 2003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후 지난 해 다시 천만불 탑을 수상한 영예를 안았다.

매년 수출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동일화학은 향후 5년내에 3천만불 이상의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화학의 놀라울만한 수출 실적의 일등 공신은 세계간 대륙별 국가별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뛰어난 에이전시와의 다년간 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것이 주요 요인



▲ 한용교 명예회장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오영택 대표이사

으로 꼽힌다.

오 사장은 “동일을 대변 할 수 있는 그 지역 최고의 에이전시와의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작용해 동일의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동일은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하여 3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 하고 있다.

동일은 수출시장 확대 뿐 아니라 꾸준히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97년 9월 특허청으로부터 ‘수축성 필름을 이용한 용기의 밀봉구조 및 밀봉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1998년 ‘도시락 용기를 제조하기 위한 수지조성물’로 1999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성형품 및 성형방법’으로 또다시 특허를 받았다. 이러한 꾸준한 기술개발의 노력으

로 지난 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기도 했다.

특히 동일은 2002년 PVC 수축필름 규제 법령으로 인해 OPS 수축필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 판매규모가 확대일로에 있어 대부분 PET수축 필름으로 대체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 할 것으로 보인다.

오 사장은 “일본의 경우 OPS 수축필름이 수축라벨 전체 시장의 약 70% 차지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필름의 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OPS 라벨이 PET 라벨보다 비중이 약 28% 이상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존 라벨 원가보다 1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OPS 수축 필름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와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세계 규모의 사업도 구상하여야 하기에 경영자는 전략결정자로서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졌다. 정확한 판단과 목표가 기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모든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동일의 앞날을 이끌고 있는 오영택 사장. 앞으로 그의 행보를 기대하며 동일의 끝없는 발전을 주목해 본다. ☐

이한열 기자



그라비아 인쇄기 판동 trolley 자동교체 시스템개발



인쇄 및 코팅시험 연구장비 제작

권순오 / 성안기계공업(주) 과장

리 포장 업계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
가 한용교 포장인 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
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사
님들과 각 부서 부서장님들,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던 부서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연구개발부문 수상자
로 선정, 수상하게 된 성안기계공업(주) 권순오
과장은 현재 건국대 기계공학과 박사 과정 중이
며 입사 전,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이론적인 해석
을 위주로 연구해 왔다.

“입사 후 2년간 연포장 관련 기계들의 실제적
인 기능들과 산업기계로서 해결할 많은 문제점
들을 접하면서 산업현장과 지식간의 많은 차이
를 느꼈다”는 권 과장.

학위 과정을 통해 얇은 박판의 이송 및 제어
문제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 온 권순오 과장은
박판 이송과 관련된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박판 이송을 바
탕으로 인쇄 및 코팅 모듈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성안에 입사하게 됐다.

현재 권순오 과장은 성안기계공업(주) 연구개발

발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다양한 장비들에서 발
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을 위한 기초 연구와 장비의 개발을 위한 시험
장비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
장하는 관련 시장수요를 파악, 요구되는 기반기
술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
으며, 기초기술과 기술개발 수요에 대한 정보들
을 사내에 전달하여 설계로부터 조립 생산에 이
르는 전사원들이 보다 높은 기술 이해도를 갖도
록 도움을 주고 있다.

권 과장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구 개발한 그라비아 인쇄기의 판동 trolley 자
동 교체 시스템은 작업전환 시 교체가 요구되는
장비들을 모듈화(module)화 하고, 이를 기존의
수동 교체 방식에서 자동 교체 방식으로 개선,
작업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작업인원을 최소
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모듈화된 판동 trolley 자동 교체 시스템이다.
기존의 인쇄판동 교체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새롭게 디자
인된 HMI시스템은 각 인쇄 유닛에 설치된 많은

버튼들을 화면에 구성하고, 인쇄 유닛의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인쇄 유닛의 운전상태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장력제어 시스템을 위한 장력계측 시스템, Web handling에 관한 해석 프로그램, 고속운전을 위한 converting machine의 설계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 업계를 선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압출기의 성능을 향상시킨 자체 고유 모델을 개발, 스크류 형상 설계에 있어 기존의 이론들과 시뮬레이션 해석을 바탕으로 동일한 직경의 스크류에서도 안정적으로 많은 압출량을 보장하는 압출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기존의 국내 제작 압출기에 비하여 동일 스크류 크기에서 최대 30%의 압출량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압출기의 운전상태를 설정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HMI를 그간의 시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선하여 설계된 압출기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권순오 과장의 연구 개발 바탕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한몫을 차지했다.

“입사 몇 달 되지 않은 때, 시운전 일정에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지 않는 늦은밤이나 이른 아침, 또는 휴일에 출근하여 실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입사 초기에 저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좋게 평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편함이 오히려 저의 직장생활을 도와준 웃

지 못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개발 에피소드를 전하는 권순오 과장. 그는 “최근 기존의 전통적인 포장기술(인쇄 및 코팅)과 전기, 전자 산업 기술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어, 기존의 고부가가치 전자 부품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flexibility(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Roll-to-Roll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포장 기계를 제작하는 많은 업체들은 아직 새로운 roll-to-roll 시스템의 개발이나 기능의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미진한 것이 현실. 권 과장은 포장기술 관련 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수요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업체간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순오 과장은 올해 인쇄 및 코팅 시험 연구장비를 새롭게 제작하고 각종 검사 및 제어 장치들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갖추 계획이다. 이를 이용, 롤 설계 및 장력, 사행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 이 외에도 roll-to-roll 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새로운 전자부품의 생산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포장기계 업계에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갖추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경주될 때 이에 합당한 인력확보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권순오 과장. 그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



포장 소재 및 파우치시장 개척

PP필름 투과도, 기계적 물성 획기적으로 개선할 터



박성구 / (주)필맥스 생산본부 필름연구소 연구2파트장(과장)

[사]

한국포장협회가 국내 유일의 순수 포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용교 포장인상 시상식이 지난 달 2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에서는 (주)필맥스 필름연구소 연구2파트장 박성구 과장이 연구개발부문의 수상자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제품이라는 것이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혼자서 연구한다고 하여 신규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생산 그리고 영업이 하나가 되어야만 신규 제품이 출시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이상을 받아도 될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상은 우리 필맥스의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박성구 과장은 “국내 포장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 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겠다”면서 “사장님과 연구소장님 그리고 많이 팔아준 영업 사원을 포함한 모든 필맥스의 임직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박성구 과장은 1995년 舊서통 기술 연구소에 입사, 지금까지 12여년간 연구 업무만을 진행하면서 PP와의 인연을 계속 쌓아 왔다.

2003년 서통이 부도나고 서통의 필름 사업부가 (주)필맥스로 재탄생하면서 힘든 과정도 있었다는 박성구 과장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사원이 주주인 회사를 만들었다는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연구노력 끝에, 박 과장은 (주)필맥스 설립 1주년에 CPR-HS의 개발 공로를 인정, 우수 사원으로 포상 받기도 했다.

현재 박성구 과장은 RETORT 기재인 CPR 필름부분에서 일산과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환경 호르몬 관련 대체 필름과 산업재 관련 필름, 생분해성 필름등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성구 과장이 개발한 RETORT 필름인 CPR-HS, HL등의 개발은 국내 최초로

RETORT 필름을 국산화 시킨 기술을 활용, 제품에 따라 포장 후에 나타나는 POUCH의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CPR을 보다 세분화 시켰다.

이 필름은 부드러우면서 충격성이 우수하고 오렌지필름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중국 등에서 경쟁하면서 판매가 되고 있다.

또한 항균 필름은 식품 포장의 위생성을 향상시키고자 포장 필름의 표면에 항균성을 부여하여 개발한 필름으로 국내에서 SF 마크를 취득하여 유아들의 책이나 식품 포장에 안전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TORT 필름의 하나인 CPR-HW의 경우 AL 호일을 사용한 만큼의 베리어성은 나오지 않지만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이 외에도 CPST, MCL, CPWI 등을 개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박성구 과장은 “RETORT 필름 같은 경우는 워낙 일산 필름에 대한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처음 국산화 시키면서 최종 USER 측을 설득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레토르트파우치(RETORT POUCH)라는 것이 여러 기재(PET, AL, NYLON)와 함께 LAMINATION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CPR이 아무리 우수한 품질이 되었더라도 합부로 기존 사용하던 필름을 바꾼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때 만난 최종 USER

측과의 유대들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또한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연락되어 해결도 보다 쉽게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포장 산업이 발전하는 반면, 국내 포장업계의 경우, 8,90년대를 거치면서 포장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지만 2000년부터는 경쟁도 심화되고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 업체가 나타나고서는 국내의 포장 산업이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설익은 정보를 가지고 모든 포장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폄하보도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박성구 과장은 포장 필름 부분에서는 더욱 더 기능을 부여한 제품을 만들어 후발 업체(국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매년 신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2007년, PP필름의 투과도, 기계적 물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환경 부분과 에너지 부분(산업재)에 관련된 필름 소재의 개발도 국내 포장업계에는 꼭 필요한 만큼 연구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박성구 과장.

포장산업 침체기라는 업계 난고의 시기, 박성구 수석연구원의 행보를 기대해 보면서 포장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

박초혜 기자



진정한 포장인으로 거듭날 터

오가영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학년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의 많은 우수한 학우 분들을 대표해서 부족한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포장이라는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포장인으로 성장하여 포장산업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학년인 오가영 학생이 수상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응용과학부에는 패키징학과와 생물자원공학과로 나뉘져 있으며 포장전공학과는 국내 최초로 4년제로 설립됐다. 이러한 점에 큰 메리트를 느낀 오 학생은 포장학과에 입학하는 계기가 됐으며 포장이란 학문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오 학생은 “포장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나아갈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분야”라며 “패키징학과에 입문하면서



포장의 선구자가 되고 싶다는 큰 포부를 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식품포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 학생은 포장학도답게 대형마트를 갈 때 마다 포장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틈나는 대로 탐구하기도 한다. “꼭 한번쯤 누구나 애용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식품포장을 개발하고 싶다”는 그녀는 “진정한

포장인으로 당당히 거듭나 먼 훗날, 포장이란 길을 선택함으로써 생긴 회노애락을 제 얼굴 어느 한곳 정도는 고스란히 새겨두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다. “포장이란 학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오 학생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험자재가 많아져 효율적인 포장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포장업계와 학교간의 산학협력을 확대하여 패키징학과에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포장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의 발명품’이라고 강조하는 오가영 학생. 그녀의 포장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한 국내 포장산업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K]



포장엔지니어로서 제 역할 톡톡히 해낼 터

정성엽 / 경북과학대학 패키징매니지먼트 1학년

“한 용교포장인상 장학생으로 수상된다는 것에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매우 기쁘면서도 다른 훌륭한 학우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포장학문에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경북과학대학 패키징매니지먼트 1학년인 정성엽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정 학생은 “포장학과는 타 분야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창조적인 학문”이라며 “특히 포장학과와 희소성과 비전으로 인해 패키징매니지먼트에 입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학생은 평소 학과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포장에 대한 열의가 강하며 포장관련 외부행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정평나 있다.

포장산업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 학생은 현재 포장학과 및 포장산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정 학생은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포장산업에 대해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



들이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포장산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이뤄져 포장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포장학과에서도 더 많은 경쟁자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장은 아이디어 노력자체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또한 상용화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낀다는 정성엽 학생. 그는 플라스틱 캡 종류를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하여 작은 아이디어로 효율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장 캡을 개발하는 것이 소망이다.

덧붙여 정성엽 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포장엔지니어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수 있는 포장인으로 거듭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 할 것이라고 단당히 말했다.

“포장업계와 학교간의 교류가 왕성해져 포장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게 실무적인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정성엽 학생.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포장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



포장산업 발전에 밑거름 될 터

오진영 / 신성대학 상품포장과 1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을 계기로 포장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수상한 신성대학 상품포장과 1학년인 오진영 학생은 전공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학과일에 적극적이며 여러 모로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유명하다.

재입학을 통해 주저없이 포장학과를 선택했다는 오진영 학생은 “포장은 제품의 보호 및 상품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학문”이라고 말했다.

오진영 학생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포장학이 첨단 응용과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포장산업을 신산업·미래산업으로 지정할 정도로 비전이 높다”며 “이러한 메리트를 통해 포장산업의 흥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일반인들에게도 포장의 매력이 더욱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성대학 상품포장과는 실무중심의 전문교육과 주문식 교육과정, 기업체와의 산학협동 강화, 실험, 실습을 통한 전문기술을 획득하여 상품포장 분야에 기여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종이나 플라스틱, 유리병 같은 다양한 포장 재료를 이용하여 식품포장, 선물포장, 생활용품포장에 활용하는 방법과 포장 설계나 포장디자인, 포장기획 등 포장실무를 배우게 된다. 오 학생은 이러한 신성대 상품포장학과에서의 체계적인 배움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오 학생은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종류와 성질을 결합해 새로운 포장재료를 개발하여 포장산업의 한 획을 긋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오 학생은 졸업 후 포장관련 연구소에 취직해 환경 관련 포장재료 및 설비개선 연구를 통해 포장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오진영 학생. 포장인으로서의 그의 미래를 주목해 본다. ☺



친환경 및 자원순환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주력

김 해 진 /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학년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포장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학년인 김해진 학생이 수상했다.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는 유통·프랜차이즈 전공과 포장코디네이터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유통·프랜차이즈 전공은 21세기 유명산업인 유통 및 프랜차이즈 분야를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유일의 포장코디네이터전공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의 포장 및 상품코디, 디스플레이 코디는 물론 식품, 전자, 생활용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생기도록 포장을 개발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용인송담대학의 유통학부의 비전을 통해 포장산업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김 학생은 개척의 기회가 많은 포장학과를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입학하게 됐다고 한다.

김 학생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포장이라는 보호막과 편리성을 옷 입혀 완성이 된다는 점과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므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에 포장산업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포장학문 중에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김 학생은 “21세기에서는 앞으로 더욱 환경 오염에 의한 폐해가 대두될 것이므로 친환경 포장재와 자원 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단순히 ‘상품의 포장’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포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함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포장 전시회 및 세미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포장전문가로 활약할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미래 개척하는 포장연구원 될 터

유 래 혁 /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1학년

“우선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신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소했던 포장관련 학문을 배우면서 그 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며 공부했던 것이 오늘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제10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1학년인 유래혁 학생이 수상했다. 고등학교 육상부 선수 출신이었던 유래혁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포장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 학생은 “그 당시 선생님이 포장학문 분야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이 될 것이고, 광양항만 활성화로 물류와 포장의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다”며 “포장학문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일상생활에서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유 학생은 포장 환경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일반인들은 포장은 거추장스럽고 환경 공해를 유발시키고 환경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유 학생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과학적인 분석을 수치화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키고 나아가 나노소재 공학분야를 공부하여 이를 응용한 상품

포장 경량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아직 호남권에는 포장산업이 거의 없어 취업이 용이 하지 않지만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형 물류기업의 포장 관련 연구실에 들어가 전공을 살려 향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포장연구원이 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유 학생의 노력의 대가와 꿈이 이뤄지길 위해선 관련업체와 단체,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포장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포장학과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이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포장은 물류와 유통분야에 있어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어서 강조하는 유래혁 학생.

미래 포장산업의 인재로 성장할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K]